

바르는 거룩한 기름인 복합된 관유의 내재적인 의미와 계시 —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완전한 예표

9/9 월요일

아침의 누림

출 30:23-25

23 “너는 또 가장 좋은 향료를 가져오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 향기로운 육계를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겔,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
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기름 한 힌도 가져오너라.
25 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 19:39

39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롬 8:13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엡 2:6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골 3:1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벤전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과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창 1:2

2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거룩한 관유의 재료들은 두 범주로 구성되며 총 다섯 가지이다. 첫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네 가지 향료, 곧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이다. 두 번째 범주는 한 항목 곧 올리브기름으로 이루어진다.

향기롭지만 맛이 쓴 액체 몰약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한다. 성경에서 몰약은 주로 죽은 이를 장사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몰약은 죽음과 관련된다. 요한복음 19 장에 따르면, 니고데모와 다른 이들은 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준비를 할 때 몰약을 사용했다.

몰약은 향기로운 나무에서 나온다. 이 나무는 잘리거나 저절로 갈라질 때 또는 절개를 통해 즙을 낸다. 고대에 이 즙은 죽음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사용되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분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몰약 섞은 포도주를 그분께 드렸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의심할 바 없이 출애굽기 30 장에서 몰약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향기로운 액체 몰약은 고통을 경감할 뿐 아니라, 몸에서 어떤 좋지 않은 분비물이 나올 때 그러한 몸을 치료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 우리의 인간 생명에는 좋지 않은 분비물들이 있지만,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이 문제를 고친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8, 1725-172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향기로운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상징한다. 육계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장을 자극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몰약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하고,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상징한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경감하고, 좋지 않은 분비물들을 고치며, 결국에는 우리를 자극하여 기쁘고 즐겁게 해 줄 것이다. ... 주님의 죽음을 적용할 때 나는 치유되고, 조정받으며, 자극받고, 분발된다.

창포는 높이나 진흙에서 자란다. 그러나 창포는 비록 높에서 자라지만 하늘을 향해 높이 자랄 수 있다. 향료가 배열된 순서에 따르면, 창포는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장소에서 일어나신 것을 상징한다. 주님은 늪, 즉 죽음의 상황 안으로 넣어지셨지만 부활 안에서 일어나 서 계신다. 그러므로 창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을 의미한다.

네 번째 향료인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상징한다. ... 육계와 계피는 모두 달콤하고 향기롭다. 게다가 육계와 계피가 추출되는 식물은 종종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도 살고 자란다.

고대에 계피는 곤충이나 뱀을 쫓아내는 방충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효능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부활은 분명히 방충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악한 ‘곤충들’을 쫓아내며, 특별히 옛 뱀 마귀를 쫓아낸다.

올리브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눌러 짜서 산출된다. 올리브기름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압력을 통하여 흘러나온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올리브기름으로 상징되신 하나님의 영은 지금 더 이상 그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어떤 성분들과 복합된 기름이다. 이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7 장 39 절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는 복합되신 영께서 계시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께서 복합되시는 과정 혹은 섞이시는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완결되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8, 1726-172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7

9/10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롬 8:9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 1:26

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겔 1:5

5 또 그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신 4:35

35 그런 일들을 그대에게 보여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그대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딤후 2:5

5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 2:4

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을 소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무교 과자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바쳐야 한다.

성경에서 4 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한다. ... 주 예수님은 육체 되심 안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셨다. 네 가지 향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과 관련해서 ‘창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응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창조된 존재일 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가르친 아리우스(Arius)의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이다.

기름은 신격에 속한 신성을 상징한다. ... 1 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창조주를 상징한다.

이 복합된 관유 안에 숫자 4 와 1 이 있을 뿐 아니라, 숫자 4 와 숫자 1 은 함께 섞인다. 이것은 인성과 신성이 섞이는 것, 즉 연합되는 것을 상징한다. 복합된 관유에 관해서, 우리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복합’과 ‘섞임’은 사실상 ‘연합’을 의미한다. 네 가지 향료는 기름과 함께 연합되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8, 17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르는 기름의 다섯 가지 요소, 즉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는 모두 눌러 짜거나 자르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열매들이 틀에 넣어서 짓눌리지 않는다면 올리브기름은 산출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몰약과 육계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껍질이 반드시 베어져야 한다. ... 나무에서 끈적한 진액이 흘러나올 때, 그것은 눈물과 같은 모양을 띤다.

육계는 나무껍질의 속부분에서 나오고, 계피는 껍질의 바깥 부분에서 나온다. 육계는 심장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고, 계피는 곤충과 뱀을 쫓아내는 데 사용된다.

모든 향료는 쓰임을 위해 고난을 거침으로 준비되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께서 복합된 관유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실 수 있었음을 가리킨다. ...

향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통해 기름과 함께 섞여서 복합되신 영이 되었다.

주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은 태어나신 순간부터 즉시 고난받기 시작하셨다. 이러한 고난은 몰약에 의해 상징된다. ...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은 고난받는 생활이다. ... 날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칼로 베인 나무에서 눈물과 같이 떨어지는 몰약을 체험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박사들은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주님께서 죽으셔서 그분을 장사 지낼 때 그분의 몸에 몰약을 놓음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의 시작과 끝, 즉 그분의 출생과 죽음에 몰약이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삶이 태어나신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고난의 삶이자 눈물의 삶이었음을 가리킨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곧 몰약의 삶을 사셨다.

우리는 몰약을 자신의 체험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디에 있는가? ...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영 안에 있다. 영어에서 '영(spirit)'이라는 단어의 특별한 용례 중 한 가지는 액체의 형태로 추출된 물질의 본질, 특히 증류에 의해 추출된 물질의 정수(精髓)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그리스도의 죽음의 정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포함된 한 가지 요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 영이 필요하다. ... 로마서 6 장에 계시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로마서 8 장에 있는 그 영을 통해서만 체험될 수 있다. ... 우리는 그 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은 로마서 6 장에 있지만,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로마서 8 장에 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9, 1741-174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8

9/11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2:20, 27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마 25:2

2 그들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였습니다.

창 6:15 (note 2)

15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삼백 규빗이고, 너비는 오십 규빗이며, 높이는 삼십 규빗이다.

벤전 1:2

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6:11

11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롬 15:16

16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는 출생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힘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셨다. ... 우리는 물질에서 추출된 본질이 그 물질의 정수임을 보았다. 이 원칙을 그리스도의 영계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정수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모든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효능을 갖는다.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을 갖는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을 모방하는 모조품을 갖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갖는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9, 174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기름바름을 받는 것은 신성한 페인트칠을 받는 것이다. ... 그 영에 대한 우리의 체험

방면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페인트칠’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수백 겹으로 칠해질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주로 기름바름을 통하여 조용히 우리를 가르치신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에 관해 여쭙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심으로써 그것에 관하여 가르치실 것이다.

요한일서 2 장에 따르면, 우리 안에 있는 기름바름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는 누차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기름바름의 움직임이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준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대한 체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믿는다.

오백 세겔의 몰약은 온전한 책임의 한 단위를 상징한다. 성경에서 숫자 5는 책임을 상징한다. 우리는 사람의 손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의 손에 네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있어서 우리는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 숫자 4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숫자 1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숫자 5는 우리에게 책임을 질 능력을 주시는, 사람에게 더해지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성경에는 5가 책임의 숫자임을 보여 주는 분명한 예들이 존재한다. 십계명은 두개의 판위에 기록되었는데, 각 판에 계명이 다섯 개씩 기록되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는 각각 다섯 처녀로 이루어진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 십계명과 처녀들의 경우 모두에서 숫자 5는 책임을 상징한다. 100에 5를 곱하여 나온 오백 세겔의 몰약은 온전한 책임의 한 단위를 상징한다.

출애굽기 30장 23절은 “향기로운 육계를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겔,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이라고 말한다. 이백오십 세겔의 의미는

온전한 책임의 한 단위의 절반을 상징한다. 이백오십 세겔의 육계와 이백오십 세겔의 창포는 둘이 한 단위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이신 분께서 죽음을 통해 나누어지신 것을 상징한다. 향료들이 온전한 단위 셋을 이루고 그중 가운데 단위가 절반으로 나누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지니신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잘리실 것인지를 상징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30장 24절은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기름 한 힌도 가져오너라.”라고 말한다. 계피 오백 세겔도 온전한 책임의 한 단위를 상징한다.

각각 오백 세겔로 이루어진 세 단위의 네 가지 향료는 온전히 책임을 지시는, 인성과 연합되신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나는, 말씀의 사역에서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책임을 지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말하는 사람과 연합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8, 1730-17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9

9/12 목요일

아침의 누림

출 30:26-30 (26, 30)

- 26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 27 또 상과 그 모든 집기, 등잔대와 그 집기, 분향단,
- 28 번제단과 그 모든 집기,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 29 너는 이렇게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30 또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는 나를 섬기게 하여라.

롬 15:16

16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후 1:21

21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벤전 2:5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복합된 관유는 성막과 그 모든 집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모두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였다(30:26-30). ... 복합된 관유로 예표되신 복합되신 영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봉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관련된 것에 기름 바르기 위한 분이시다(요일 2:20, 27). 그 영의 기름바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 주님의 권익을 위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기름바름을 따라 행하고, 활동하며, 일하고, 처신해야 한다. 이러한 기름바름은 그 영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서 8 장 4 절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 장은 우리에게 그영을 따라 살고 행하라고 말한다(16, 25 절).(그리스도인의 생활, 8 장, 135-1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은 이러한 완결되신 영께서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계시할 뿐 아니라 매우 힘주어 강조한다. 로마서 8 장 16 절은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4 장 22 절은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심을 계시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 복합되신 영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바로 이 복합되신 영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된다. 영을 따라 행하고 살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지켜진다.

이 관유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한다. 이 관유의 움직임, 곧 이 기름바름은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친다. 기름바름은 관유가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하는 것이며, 관유는 우리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30 장에 언급된 복합된 관유라는 이 예표가 놀라운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복합된 관유로 예표된 완결되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우리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가련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기름바름 안에서 우리는 높이 올려진 사람, 신성한 표준에 이른 사람을 갖는다. 또한 이 기름바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매우 달콤한 죽음과 그 효능을 갖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날 수 있었다. 육계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얼마나 달콤한지!

또한 이 기름바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히 원수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항하고 그것들을 쫓아내는 데 매우 능력이 있다. 이것은 고대에 곤충과 뱀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된 계피로 예표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원수에게서 오는 모든 반대와 공격에 대항하고 모든 악한 '곤충'과 '뱀'을 쫓아낸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으며 특히 그들을 이끄는 뱀, 곧 옛 뱀인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의 타고난 인간 미덕들을 살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선한 것들은 악한 것들과 함께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속한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주하시고 복합되신 영의 움직이심과 일하심이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만이 생명나무에 속한다.(그리스도인의 생활, 8 장, 136-1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 8 장

9/13 금요일

아침의 누림

빌 1:19-20, 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눅 24:26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고,

출 37:29

29 그는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바르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기로운 향을 만들었다.

시 45:7-8

7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사악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의 동료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8 왕의 모든 옷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 향기가 나고 상아 궁전들에서 흘러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합니다.

시 89:20

20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복합된 관유는 성막의 봉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집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바르는 데 사용되었다. 더욱이, 이 복합된 관유는 제사장들에게도 발라졌다. 이것은 복합되신 영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곧 몸을 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가 그 영을 누리려면 성막과 제사장 체계의 일부분, 즉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유가 발라지며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릴 것이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3, 3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체험을 통해 만일 우리가 교회와 문제가 있거나 교회 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대한 누림이 없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매우 많이 할지라도 기도에 효력이 없다. 우리는 복합되신 영께서 실재이심을 믿으며 자신에게 공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르짖거나 또는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를 그분께 말씀드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영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몸에서 단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성막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출애굽기 30 장에 따르면, 복합된 관유는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바르기 위한 것이다. 복합되신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성막인 몸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인 제사장 체계를 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이 몸과 제사장 봉사에서 끊어져 있다. 그 결과 그 영의 넘치는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극히 어렵다.

바울은 몸 안에서 살았다. 비록 그는 놀라운 사도였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했다. 이것은 바울이 몸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더욱이 바울은 또한 제사장 체계에 참여했다. 바울은

성막인 몸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인 제사장 체계의 일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몸 위에 흘러내리는 관유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위치에 있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신이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의 흐름 아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교회와 하나이고 제사장 봉사 안에 머문다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풍성한 기름바름을 누릴 것이다. 심지어 약간 기도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저 “아멘.”이라고 말하기만 해도 우리는 이러한 기름바름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 형제는 집회에서 주님께 돌이키며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주님으로 적셔지며 기름바름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의 불쾌한 느낌은 사라진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그 영의 신선한 기름바름을 체험했음을 깨닫는다. 그녀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우울했고 즐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으며,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이것은 그 영의 기름바름에 대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넘치는 공급을 갖고 계신다. 이러한 공급은 많은 성분을 함유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음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신성한 음료 안에 있다. ... 우리가 참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복합된 관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며, 우리는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의 풍성을 누린다. ... 몸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확대되신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3, 314-3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3

9/14 토요일

아침의 누림

시 133:1-3

-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고전 12:4-11

- 4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영은 한 분이십니다.
- 5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 6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 7 각 사람에게 그 영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8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며,
- 9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 영 안에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일한 그 영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신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11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동일한 그 영께서 운행하시어 그분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합된 관유,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기름 발라 지셨다. 시편 133 편 2 절은 어떻게 바르는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의 수염을 거쳐 옷깃 즉 옷단까지 미치는지를 묘사한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온몸에 기름 발라지시는 것을 상징한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8, 1730 쪽)

참된 하나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이다. ... 이러한 연합을 실행하는 길은 시편 133 편에 있다. 2 절에 있는 고귀한 기름인 관유는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6 장, 427-4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복합되신 영께서 우리에게 기름 바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페인트칠'하시는 것이며 그 '페인트'는 바로 삼일 하나님이다. 이 페인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갖는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간 생활도 갖는다. 관유의 이 모든 성분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복합된 관유 안에 있는 모든 성분으로 페인트칠된다. 합당한 교회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인 하나 안에 있는 생활이다. ... 이렇게 더 페인트칠될수록 우리의 타고난 조성과

성향과 기질은 점점 제거된다. 남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우리의 높아진 인성의 연합이다. 이것이 곧 하나이다.

교회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요소와 분열시키는 요인들이 정복된다. 이것이 하나의 효과이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 페인트가 우리의 존재에 더 적용될수록 우리는 분열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하늘에 속한 페인트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연적인 관념에 따른 피상적인 하나가 아니라 참된 하나 안으로 이끌린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 안으로 페인트칠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하나 안에 있다.

하나라는 터는 바로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함께 더하여 형성한 하나 안에 있지 않다. 그러한 종류의 하나에서는 더하기 쉬운 만큼 제하는 것도 쉽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하나안으로 이끌렸다면, 어떤 누구도 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에는 더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는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되신 삼일 하나님과 관련된다.

관유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다. ... 시편 133 편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이 관유는 머리 위에 부어진다. 그다음 그것은 수염으로 퍼져 나가서 옷단까지 흘러내린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이라면 관유를 체험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집에서 홀로 주님을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교회와 하나인가 아닌가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와 하나라면 집에서 홀로 주님을 합당하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 이유는 바르는 기름이 개인주의적인 지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을 위한 것이며 심지어 몸과 함께하는 머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유로 페인트칠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는 기름과 함께 그 모든 요소의 적용을 자연스럽게 누릴 것이다. 이 관유가 적용되어 산출된 이 하나는 얼마나 놀라운지!(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6 장, 428-43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6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7

찬송: 242 (英)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中:196)

1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됐네
부활하신 하나님-사람 승천하여 그 영 되셨네.
2 승천하신 예수로부터 우리 영에 그 영이 임했네
그의 모든 실재 이-제 우리 체험 되게 하셨네.
3 예수 그리스도의- 영 모든 성분을 포함하였네
신-성과 인성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감춰져.
4 이 영 안에 포함돼 있네 죽음의 효능 부활의 능력
승천 보좌 권위와 왕국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
5 이 영이 그 모든 성분을 우리 영 안에 작용케 하네
그의 기름 바름 통하여 우리도 주 풍성 누리네.
6 우리 모든 비결 되-신 모든 것 포함한 영 인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돼 우리 안에 운행하시네.

9/15 주일

아침의 누림

계 1:4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계 3:1-6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2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죽어 가고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일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다.
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6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 4:5

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 5:6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0:32-3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51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New and Living Way through the Veil

Scripture: Heb. 10:19-31
Assigned Reading: *CWWN*, vol. 19, "Notes on Scriptural Messages (3)," The Blood and a Worship that Draws Near to God; *CWWN*, vol. 20, Questions on the Gospel, ch. 47